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 Human Rights(SOPA)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 796-8364, Fax : 793-4745, Htel/Pc-Serve ID : SOPA21

수신 : 경기도청, 광주군청

참조 : 사회과(계) 「사회복지법인」 해인원 담당

발신 : 참/여/연/대/ 내부고발자지원센터(소장 박연철 변호사)

1995. 4.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제목 : 해인원 비리 실사와 해인원 정상화 촉구서

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87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해인원(광주군 탄벌리 소재)은 최창수 전 이사장(설립자) 당시에 권권포기각서, 국고 보조금 횡령, 후원금 횡령, 상습적인 아동 학대 등 많은 부정비리가 있어 왔음은 귀 관청에서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3. 또한 위와같은 부정비리들은 원생 재할·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내부의 보육사들에 의해서 사회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당시 상당부분 시정되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4. 그러나 94년 9월 서정희 현 이사장이 해인원을 맡으면서, 보육사들은 이사장의 전 직원 사퇴 압력, 해인원 매매설, 아동 학대 방치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사장 측과 일부 관청에서 조직적으로 조합원 사퇴 압력, 해고, 정광용 노조위원장 절도죄 구속 등 갖은 탄압을 가했음이 해인원 김순희 원장의 내부고발로 드러났습니다.
5. 또한 김순희 원장(직위해제)의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의하면 해인원 불법 매수, 후원금 횡령, 국가예산전용, 정광용 노조위원장 허위 사실로 인한 구속 등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부침 자료1. 참조) 특히 일련의 불법행위들에 일부관청에서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6. 참/여/연/대/는 해인원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부침 자료와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4월 18일 까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검찰에 탈법·불법사실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 부침자료

1. 김순희 원장 내부고발 자료
2. 장애인 복지 신문 95. 4. 7. (금) 기사